

1. 데이터 신뢰성 확보

1안) 경영진의 의지 장기관점

사회적인 분위기(4차 산업혁명, 안하면 뒤쳐진다는)로 인해 하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, 말로만 하는 경우가 **정말로 대부분 그렇습니다**

→ 경영진 주관 하에 진행되는 Daily, Weekly로 진행되는 회의체에 시스템 그대로 활용하면 가장 좋음

2안) 고객사의 요구

: 고객사의 Process 요구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함.

※ 저는 2안)이 단기간 효과에는 좋다고 생각함, 신뢰성은 시스템 구축부문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됨.

2. 활용도 향상

1) 사람이 중심이 되어 분석해야 하는 시스템은, 언젠간 활용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.

: 분석방법이나 기술이 어려울 수록 일부 인원에게 국한되어 활용되다 보면, 상사 또는 관련부서에서 알 수 가 없으니, 담당자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짐

※ 보여주신 후고꾸의 레포트들의 지표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,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지만, 교육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면, 어려운 느낌이 었습니다.

즉, 분석이나 활용을 안해도 그 누구도 질책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.

2) 활용화 방안

- (전문인력/부서가 없는 회사규모에서는) 레포트를 보고 사람이 분석하고 조치를 하는 방법은 좋지 않음.

- 문제현상에 대해(ex, 불량률 1.2%이상, 특정불량 연속, 장비 down 5분이상, 조업시작 후 15분 내 장비 가동) 자동 감지 후, 모바일로 알람을 보내주고

- 가능하다면 장비 자동STOP시키고, 이후 조치에 대한 시간관리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.

① 분석과 감지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하고,

② 사람은 이를 조치하는 업무의 방향으로 구축

③ 이렇게 해서 정합성이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, SUMMARY된 실적이나 분석레포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2차로 실시

3. 의견

- 대기업은 워낙 비용이나 전문인력의 투자가 크고, 사용자들은 분업이 확실히 되어 있기에 활용성에 대한 고민을 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
- 저희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, 담당자의 입/퇴사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화가 크기 때문에...
- 사람이 해야하는 기능은 최소화로 진행 합니다

※ 아무리 좋은 기능도 사람의 입력/등록 등의 개입이 많은 것은, 언젠간 활용이 떨어지고 데이터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.